



##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관련 어려움과 지원요구에 관한 질적연구

옥민욱\* · 표윤희\*\* · 홍정숙\*\*\*

### A Qualitative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Difficulties Related to College Life Experience and Support Needs of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or Brain Lesions

Ok, Min Wook\* · Pyo, Yunhui\*\* · Hong, Jeong Suk\*\*\*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university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brain lesions regarding college life difficulties and support needs, and to suggest support plans and implications for their successful college lives. **[Method]** This study used a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university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brain lesions. Each interview took about 1 hour, and the transcribed data after the interview were analyzed using the continuous comparative analysis method.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2 categories, 6 themes and 37 sub-themes were derived. Depending on the research purpose, difficulties and support needs were classified into categories, and the themes were classified into physical barriers, attitudinal barriers, institutional barriers, support needs for physical barriers, support needs for attitude barriers, and support needs for institutional barrie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students with disabilities with physical or brain lesions have experienced a variety of physical barriers (e.g. difficulties in moving around school, accessing campus buildings and using facilities), attitudinal barriers (e.g. a lack of understanding and the inappropriate attitude of faculty and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and institutional barriers (e.g. insufficient time using helper program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stated systematic supports are required to overcome the barriers.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support plans and implications for a successful college life for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or brain lesions.

**Key Words** : Physical disabilities, Brain lesions,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College life, Support needs

-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교신저자, 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부교수(yhpo@uu.ac.kr)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Uiduk University  
\*\*\* 공동저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 실현과 역량 강화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여러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한다(서인혜, 공계순, 2004). 대학교육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전문 직종 근무 기회를 확대하며(김라경 외, 2014), 또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활동 증가 등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성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대학교육을 받는 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20a). 그러나 장애대학생은 학업과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장애대학생은 교수·학습, 생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들을 위한 대학의 시설·설비 지원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일 외, 2009; 조현진, 박재국, 2013).

장애대학생의 선발과정, 교수·학습지원, 시설·설비 환경에 대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2003년 시작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어 2017년까지 여섯 차례의 평가가 진행되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13조, 제29조, 제30조, 31조, 제32조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등으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통하여 장애대학생의 교육여건 향상과 장애대학생에 대한 대학의 인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제7차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교육부, 2020b).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습 문제와 물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도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모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지원(김동일 외, 2013; 김미선, 2008; 김은하, 2018), 학습지원(권순우, 2017; 김동일, 손지영, 2008; 김미선, 박중휘, 2010), 교수자 교육 및 태도 개선(최민숙, 김성애, 박은혜, 2002), 편의시설 및 설비 지원 관련 교육환경 조성(김미선, 2008; 채희태, 2016)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애대학생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에서의 어려움은 본인이 지닌 장애의 유형 및 정도와 같은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그 원인이 다양하므로(김형일, 2012), 각 장애의 특성과 유형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각 장애 특성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장애대학생 중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은 운동기능과 자세의 문제로 근육의 협응이 어렵고 신체적인 손상으로 인해 운동능력에 있어 제한된 움직임을 보인다(Best, Heller, & Bigge, 2005).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신체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의사소통적인 어려움도 함께 보일 수 있으므로 학습 및 활동 시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또한, 이들은 이동권, 정보 접근권, 학습권에서 제한을 받으며 다양한 활동 참여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때, 교수·학습 및 시설 지원 등 폭넓은 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더 나은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이들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지원요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15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장애대학생 관련 국내 연구 동향에 대해 분석한 강성구(2015)의 연구에서는 연구의 장애유형에 대해 ‘공통’,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및 기타’로 구분하여 분류한 결과, 대부분(68%)의 선행연구에서 장애유형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장애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 관련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여러 장애유형의 학생을 포함하여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지체장애, 청각장애 및 시각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내 지원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및 요구에 대해 살펴본 연구(김미선, 2008)와 지체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과정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김동일 외, 2013)가 있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이루어진 연구의 경우는 지적장애 및 기타(11.8%), 시각장애(10.4%), 청각장애(9.4%)로 나타나, 장애유형별 연구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체장애 관련 연구의 경우는 0.7%로,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강성구, 2015).

장애유형별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관련 경험과 인식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는 시각장애(예: 김미선, 2012; 김미선, 박중휘, 2010, 오윤진, 이순민, 2013; 조현근, 2016)와 청각장애(예: 권순우, 2017; 권순우, 김병하, 2003; 김경화, 2015; 백유순, 2005)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체장애 대학생에 관한 몇몇 선행연구는 이들의 장애수용 경험을 살펴본 신애자, 김용수(2017)의 연구, 지체장애 대학생을 위한 도우미 지원 관련 연구(이미숙, 2011)와 중증 지체 장애대학생의 활동보조지원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곽정란, 2009)가 수행되었다. 이처럼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이 겪는 대학생활의 어려움과 지원요구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시절은 장애대학생에게 불안, 도전,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기로, 대학에서 이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의 양상은 변화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관련 어려움과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지원요구에 대한 인식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시사점과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향후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 지원제도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들이 경험한 대학생활 관련 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요구는 무엇인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A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 11명이 참여하였다. A대학교에는 2020년 현재 총 257명의 장애대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그 중 뇌병변 장애대학생은 69명(27%), 지체장애대학생은 40명(16%)으로, 이들은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A대학교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애학생지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 모집 도움을 요청하였다. 담당자가 먼저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본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확인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의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연구자들에게 연락처를 전달해주었다. 이후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본 연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학생의 연구 참여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A대학교에 재학 중인 총 11명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이 연구 참여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장애유형별 참여 인원수는 지체장애 5명, 뇌병변 장애 6명이었고 장애 정도는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8명,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전공은 중등특수교육과 5명, 사회복지학과 2명,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언어치료학과, 경영학과 각 1명씩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학생 5명, 여학생 6명이었고, 학년의 경우 2학년 2명, 3학년 6명, 4학년 3명으로 구성되었다.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Participants	Major	Grade	Gender	Type of Disabilities	Degree of Disabilities
A	Social Work	4	Male	Physical disabilities	Severe
B	Business	4	Male	Physical disabilities	Severe

C	Secondary Special Education	3	Female	Physical disabilities	Severe
D	Secondary Special Education	2	Female	Physical disabilities	Severe
E	Secondary Special Education	4	Male	Physical disabilities	Mild
F	Social Work	2	Male	Brain lesions	Severe
G	Speech Therapy	3	Female	Brain lesions	Severe
H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3	Female	Brain lesions	Severe
I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3	Male	Brain lesions	Severe
J	Secondary Special Education	3	Female	Brain lesions	Mild
K	Secondary Special Education	3	Female	Brain lesions	Mild

## 2. 자료 수집

### 1) 면담을 위한 질문지 개발

우선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참여자 면담을 위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면담 질문지의 문항은 관련 선행연구(김동일, 정소라, 고혜정, 김주선, 김수연, 2013; 김은하, 2018; 조현근, 2016; 최연진, 임경원, 2019; 최지영, 2009)를 참고하였으며 연구자 간의 논의를 거쳐 개발하였다. 면담을 위한 질문들은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인 수업, 대인관계,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질문지에 대해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많은 특수교육 전공 교수 2명에게 연구목적에 잘 부합되는지 타당도 검토를 의뢰하였다. 제공된 피드백을 바탕으로 질문 내용이 더욱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일부 질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최종 완성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의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Table 2> Semi-structured interview questions

Interview Questions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What are your dissatisfaction or difficulties regarding classes(e.g. professors' attitudes, grades, assignments, exams, group activities, etc.)? How do you deal with the difficulties and what support do you need?</li> <li>2. How is your relationship with people(e.g. schoolmates, professors, and seniors and juniors, etc.)? What are your difficulties regarding relationship? How do you deal with the difficulties and what support do you need?</li> <li>3. What are your dissatisfaction or difficulties regarding the daily life(e.g. commuting to school, moving around the school, eating, living in a dorm, etc.)? How do you deal with the difficulties and what support do you need?</li> <li>4. What else would you like to see improved in your school life?</li> </ol>

## 2) 면담 실시

면담은 2020년 7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시행을 위해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락하여 면담이 가능한 날짜, 시간 및 선호하는 면담 방법에 대해 의논하였다. 면담은 최대한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맞추어 학생이 선호하는 일정과 면담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방학 기간에 면담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절 학기 수업을 듣거나 학교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는 대면으로 면담을 시행하였고, 원거리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는 줌(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11명 연구 참여자 중 10명은 대면으로, 1명은 비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면 면담의 경우 A대학교 내의 연구실에서 실시하였으며, 비대면 면담의 경우 연구자의 줌 개인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면담에 앞서 면담 질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 질문지의 내용을 미리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이때 연구 동의서도 함께 발송하였다. 연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자의 권리(예: 개인정보 보호, 참여 중단 권리) 및 자료 분석을 위한 면담 녹음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면담 시 연구자는 동의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한 뒤 연구 참여자의 참여 동의 사실 및 정보 이해를 재확인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 시행 전에 서명한 연구 동의서를 연구자에게 제출하였다. 비대면 연구 참여자에게는 이메일로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별로 1회씩 진행되었으며 각 면담은 연구 참여자별로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략 1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면담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면담 중 연구 참여자의 답변을 경청하고 적절히 반응하였다. 면담은 개발된 반구조화된 질문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 질문을 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유연하게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 내용은 추후 분석을 위하여 오디오 녹음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을 위한 구어 의사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지만, 한 연구 참여자(I)의 경우 뇌병변 장애로 인해 정확한 구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경우 연구 참여자의 구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아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학생의 모든 답변은 전문 인력이 바로 전사하였다. 면담 후에는 소정의 사례금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지급하였다.

### 3) 면담 자료 전사

전문 인력이 진술 내용을 바로 전사한 연구 참여자(I)를 제외한 모든 연구 참여자의 면담 녹음 자료는 특수교육과 학부생 3명이 전사하였다. 모든 자료가 전사 완료된 후, 연구자들은 면담 녹음 파일을 들으며 면담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는 검토 및 수정 작업을 하였다. 또한, 완성된 전사 자료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내어 잘못 전사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등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3명(C, E, J)의 연구 참여자가 수정이 필요한 부분(예: 오류 수정, 추가적인 정보 제공)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그 외 연구 참여자들은 전사 자료를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전사 자료를 수정하였고, 이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확정하였다.

## 3. 자료 분석

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는 지속적 비교 분석법(Merriam, 2009)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자들은 독립적으로 지체장애 연구 참여자(A, B, C, D, E) 5명의 전사된 분석 자료를 정독하면서 한글 워드 메모 넣기 기능을 이용해 연구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진술에 표시하고 그 진술이 포함하고 있는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혹은 어구를 기술하였다. 둘째, 연구자들은 함께 모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논의하고 협의를 통해 범주, 주제, 하위 주제, 의미 있는 진술로 구성된 1차 코드북을 개발하였다. 연구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된 부분은 심층적인 재분석과 논의 과정을 거쳐 100% 합의에 도달하였다. 셋째, 뇌병변 장애 연구 참여자(F, G, H, I, J, K, L) 6명의 전사된 분석 자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1차 코드북의 기존 범주, 주제, 하위 주제 등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1

차 코드북을 개정하여 2차 코드북을 완성하였다. 넷째, 2차 코드북이 완성된 후에는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풍부한 특수교육 전공 교수 2명에게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제공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3차 코드북을 완성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총 2개의 범주, 6개의 주제, 37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 4.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및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한 노력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질적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와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이때 연구 참여자의 권리 및 보호(예: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거부 및 중단 권리)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로부터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서명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둘째,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전사된 면담 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모두 반영하여 최종 분석 자료를 완성하였다. 셋째, 자료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지속적이고 충분한 연구자 간의 협의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풍부한 특수교육 전공 교수 2명에게 분석된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받았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에 있어 연구 참여자의 진술 중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해당 연구 참여자에게 연락하여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정확한 자료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Ⅲ. 연구 결과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관련 어려움과 지원요구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 비교분석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 총 130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표 3>과 같이 2개의 범주, 6개의 주제, 37개의 하위 주제로 분류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범주는 크게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관련 ‘어려움’ 과 ‘지원요구’ 2가지로 나누었다. ‘어려움’ 범주 안의 주제는 ‘물리적 장벽’, ‘태도적 장벽’, ‘제도적 장벽’ 3가지로 분류되었고 ‘지원요구’ 범주 안의 주제는 각 장벽에 대한 지원요구로 분류되었다. 전사 자료 인용에 사용된 기호는 연구 참여자 구분 알파벳과(A-L) 전사 자료의 줄 번호를 의미한다.

**<Table 3> Perceptions of university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or brain lesions regarding the difficulties and support needs related to college life**

Categories	Themes	Sub-Themes
Difficulties	Physical Barri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allenges of moving around school</li> <li>• Narrow and inconvenience structure of classrooms</li> <li>• Inaccessible structure of the library and dorms</li> <li>• Facilities on campus that do not consider the convenienc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li> <li>• Inconvenience of using an electric wheelchair</li> <li>• Difficulties of writing and typing</li> <li>• Challenges of moving outside of school</li> </ul>
	Attitudinal Barri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fficulties in building relationships due to disability</li> <li>• Inappropriat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school members</li> <li>• Difficulties in relationship with the helper</li> <li>• Organizations refusing the volunteer particip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li> </ul>
	Institutional Barri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mitations of the helper system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li> <li>• Dormitory system changing rooms every semester</li> <li>• Absence of attendance guidelin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li> </ul>
Support Needs	Support needs for physical barri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ed for repairing and improving the facilities</li> <li>• Promotion of the pedestrian path safety</li> <li>•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campus facilities</li> <li>• Wheelchair-accessible classrooms</li> <li>• Support for wheelchair improvement and maintenance</li> <li>• Offer alternative assignments</li> <li>• Provide a stenographer for students with oral communication difficulties when presenting</li> </ul>
	Support needs for attitudinal barri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ed to improve instructors' perceptions and attitude</li> <li>• Expand the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for school members</li> <li>• Offer programs to support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li> <li>• Support programs for impro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elpers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li> </ul>
	Support needs for institutional barri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and and improve the help program for improving the convenienc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li> <li>• Develop and provide various support program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li> <li>• Provide information of organizations where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n go for the volunteer activities</li> <li>• Consider for long-term entry into the dormitory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li> <li>• Provide attendance guidelin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li> </ul>

## 1.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관련 어려움

### 1) 물리적 장벽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대학생활 관련 어려움 중 ‘물리적 장벽’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교내 이동의 어려움’에 대하여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휠체어로 교내를 이동할 때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G는 “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원래는 인도로 다녀야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 옛날에 설치한 곳들이 많고 노후화된 곳이 많다.” (G: 170-171)고 진술하였다. 인도에는 “울퉁불퉁한 부분이 많고 인도에는 가로수가 간혹 심겨 있는데 나무뿌리가 인도로 용기되는 경우 휠체어가 빠르게 달리면 간혹 미끄러지는 경우가” (A: 250-252) 있으며 연구 참여자 D는 학교 정문 쪽 횡단 보도의 턱에 휠체어가 끼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험도 있다고 말하였다.

학교 정문이 그 횡단보도 턱이 되게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끼인 거예요. 그 횡단보도 그 쪽에서. 그래서 막 버스오고. 그래서 같이 갔던 친구가 되게 당황하고 그랬는데 지나가시던 분이 도와주셔서 나왔어요. (D: 208-211)

“인도보다 아예 차도가 더 안전한 경우도 많아서” (F: 178) 결국 교내 이동 때 차도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지나다니는 차로 인해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말하였다. 인도의 불편함으로 인해 “장애지원센터에 가서 면담회를 하면 ‘이런 부분들을 고쳐주세요.’ 해도 사실상 잘 안 고쳐지는데 현실” (G:171-172)이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비나 눈이 올 때 휠체어로 교내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땅이 얼잖아요. 강의실 가는 길에 오르막이 있는데 잘못하면 다치니까 (중략) 그래서 가기가 힘들고” (A: 242-244), 이런 경우에는 “도우미랑 같이 가도 휠체어 자체가 무거우니까 땅이 얼어서 안 나가거든요.” (A: 246-247)라며 도우미가 있어도 눈 오는 날 휠체어 주행이 어렵고 위험함을 토로하였다. 휠체어를 타지 않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K)의 경우도 눈길을 걸어 수업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였다. 비 오는 날의 경우에는 “한 손으로는 우산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전동을 몰고 이래야 하니까” (D: 202-203)라며 휠체어 주행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두 손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우산을 들고 전동 휠체어를 조정하기가 어려워 결국 비를 맞으며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특히 A대학교 같은 경우 캠퍼스가 큰 편이어서 강의실이 다른 단과대 건물일 때 휠체어로 수업 간 짧은 쉬는 시간 동안 이동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문이 개방 안 된 부분이 많을 때, 동선

이 길어져서 힘들다는 생각” (K: 165-166)이 든다고 말하였다.

교내 건물 간 이동의 어려움뿐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은 ‘교내 건물 내에서의 이동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다. 한 연구 참여자(C)는 A대학교가 전반적인 장애인 편의 시설설비가 잘 되어있지만, 단과대 별로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하였다.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모두 없는 건물’ (G: 283)의 경우 휠체어를 타는 연구 참여자들은 그 건물에서 하는 수업을 듣고 싶어도 건물 접근성 부재로 들을 수 없다고 하였다(A).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부재한 건물의 경우 ‘그냥 걸어가거나 아니면 누가 들어주거나’ (G: 283) 해야 한다며 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그런 건물 2층에 있는 학회실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A: 299)라며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시설이 있더라도 고장 난 채 방치되거나 관리가 부족한 현실과 제한된 시설의 기능에 대해 아쉬워하였다. 예를 들면, 계단에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만, 작동이 잘 안 되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경우(G),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층만 운행하여 불편한 경우(C)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위험하고 불편한 경사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진술하였다. 휠체어 경사로가 한참을 돌아서 가야 하는 외진 곳에 있는 경우(C)와 경사가 가팔라서 수동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 느끼는 위험성(I)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사실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전기로 이동하면 막상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는데, 사실 그 경사가 가파르거든요. 근데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보면 간간이 계시고, 목발을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역시도 가끔 수동 휠체어를 이용해서 학내를 다니다거나 뭐 등교를 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엘리베이터가 안 되어있는 상황에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경사를 이동하는 게 사실상 위험하기도 하고 위험을 느끼기도 하는데 (I: 45-46)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교내 건물 접근성과 관련하여 ‘좁고 불편한 강의실 구조’에 대해 많이 언급하였다. 특히 강의실 공간이 협소한 경우, 휠체어를 타고 강의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강의실을 봐도 이제 공간이 협소하고 책상이 딱딱따닥 붙어 있다보니까 강의실이 이제 앞문도 단상에 걸려서 다 안열리는 경우도 엄청 많이 봤었고, 뒷문으로 가서 앞문으로 이동하는데 있어서 많이 좁다보니까 갈 수가 없다거나(A: 117-118)

휠체어를 타고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더라도 책상 간격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아 원하는 자리에 앉기 어렵고 공간이 있는 앞자리나 뒷자리에 앉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A, C, D, E). 원하는 자리에 앉기 위해 책상 간격을 넓힐 수 있는 경우에도 “휠체어가 못 들어가 책상을 밀고 의자를 빼고 앉아서 수업 듣고 이제 나

갈 때 또 책상 밀고 책상 빼고,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 강의실 책상이 다 무거워요.” (C: 134-136)라며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라운드 형태 및 계단형으로 책상이 놓인 강의실의 경우, 휠체어 사용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는데 휠체어가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 휠체어 사용 학생만 교수자 바로 앞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의 수강을 포기한 학생도 있다고 하였다.

그 강의실을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냐면은 약간 그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뭐라 하죠?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되어있어서 선생님 앞에서 나와서 수업하는 형태로 되어있던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휠체어 이용 학생이 그 강의실에 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교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수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건 진짜 적절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저랑 같이 듣기로 했었는데 그 강의실 환경 때문에 수강포기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C: 139-141).

또한, 연구 참여자 A는 수업시간에 발표를 할 때, 강의실의 교수자 강단에 경사로가 없어 단상에서 발표하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휠체어를 타고 단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진술하였다.

셋째, 좁고 접근이 불편한 강의실 구조와 비슷한 양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도서관과 기숙사의 접근이 어려운 공간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도서관 책장이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책을 기호를 보고 뽑고 싶어도 안에 못 들어가니까 못 뽑아요. 그래서 매번 사서분한테 가야하고” (C: 146-147)라며 접근성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연구 참여자 G는 2인 1실 기숙사의 경우 침대와 침대 사이 간격이 좁아 자신의 경우에는 휠체어를 밖에 대고 걸어 들어가지만 어떤 장애대학생의 경우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며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교내 시설설비의 부적절한 높이’, ‘소근육 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설비’, ‘교내 시설에 지체장애인용 좌석 부족’ 등을 예로 들며 ‘장애대학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교내 시설설비’ 이용에의 어려움을 진술하였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비장애인들의 높이에 맞춰진 시설설비의 사용이 쉽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데 예를 들어, “전자 출결 장치”를 핸드폰을 이용해 스캔하는 것이나 식당에서 “키오스크 무인 자판기”를 사용할 때 위치가 높아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C: 137, 159). 또한, 소근육의 제한으로 인해 이용하기 어려운 교내 시설설비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는데 식당의 키오스크의 경우 결제를 위해 카드를 스스로 밀어

넣고 빼는데, 손힘의 부족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손의 힘을 많이 이용해 돌려야 하는 동그란 모양의 강의실 문고리 같은 경우도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하였다(C). 연구 참여자 C는 강의실 문고리를 사용하기 쉬운 기다란 문고리로 교체해달라고 단과대 행정실에 연락하니 교체해주었으나, 모든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보편적 설계가 충분히 도입되지 않은 교내 시설의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식당과 도서관에 휠체어 사용 학생 지정 책상이나 식탁의 부족에 대한 어려움도 진술하였는데 일반 책상과 식탁을 이용하면 스스로 의자를 빼고 다시 밀어 넣어야 하는데 손의 힘이 없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G).

다섯째, 연구 참여자들은 ‘전동 휠체어 사용의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 F는 전동 휠체어가 편하지만, 공간의 협소나 물리적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수동 휠체어가 더 편할 때가 있으며 종종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A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충전을 해야 하는데, 기숙사 및 교내 건물에 설치된 충전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여섯째, 많은 연구 참여자들(A, B, F, H, J)은 수업 시간에 겪는 ‘필기와 타이핑의 어려움’에 대해 진술하였다. 손의 이용에 제한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거나 자필 과제를 해야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였다. 의수를 사용하는 연구 참여자 A의 경우 “필기하는 부분에서 한 손만 쓰다 보니 무리가 많이 가는 경우가 있다(A: 270)”고 하였고 연구 참여자 B는 “필기 도우미가 있더라도 필기 방식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일단 해줘도 [필기를]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만약 [도우미가] 안 구해지면 혼자 모든 과정을 다 해야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B: 95-97)”라며 수업 중 필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F는 “자필 과제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F: 89)”라며 가끔 자필 과제를 요구하는 수업이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H와 J는 과제나 발표 자료를 만들 때 타이핑을 해야하는데 이것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내 생활에서 느끼는 물리적 장벽 외에도 ‘교외 이동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은 ‘교통편의와 교통서비스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휠체어 사용자들 같은 경우, 저상버스나 나드리와 같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저상버스가 가지 않는 곳도 많고, 저상버스가 가는 곳일지라도 배차 간격이 상당히 길어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하였다(C). 연구 참여자 C의 경우 저상버스 교통편의 부재와 배차 시간의 긴 간격으로 인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실습형식의 수업을 듣고 싶었지만, 수강을 포기하였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적어도 이틀 전에 예약해야 해서 하루 전날 약속이 생기면 갈 수가 없고 A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지역에 콜택시 배차 수가 적어서 예약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고 하였다.

교통수단이 사실상 많이 보급되어 있지가 않아요. 저상버스가 아니면 나드리라던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서... 며칠 전에 예약해야 하고 10시가 땡 되면 이제 선착순으로 전화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불편하고요. (G: 233-235)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앞 상가 건물 접근성’의 어려움에 대해 진술하였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지하나 2~3층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엘리베이터의 부재로 접근하기 어렵고, 1층에 있다고 해도 계단이나 턱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대다수라고 아쉬움을 토로하였다(C). 또한 “학교 밖에 가면 경사로가 없는 곳이 진짜 많아요. 학교 밖에 있는 상가 중에서 거의 50% 정도는 휠체어 접근을 아마 못할 거예요.” (C: 222-225) 라며 휠체어 사용 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는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연구 참여자 E의 경우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갈 때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식당이 부족하여, 가고 싶어도 다른 친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본의 아니게 식사에서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 2) 태도적 장벽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대학생활 관련 어려움 중 ‘태도적 장벽’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진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인관계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고 이해시켜야 할 필요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의수를 사용하는 연구 참여자 B는 기숙사를 배정받은 후 자신이 의수를 떼고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 매번 바뀌는 룸메이트에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과 “설명하더라도 대부분 그 친구들은 이해 못 할 수도 있으니까..(중략) 이제 팔 떼고 있거나 그럴 때 괜찮다고는 하지만 불편해하는 게 많았어요.” (B: 137-138)라며 의수로 인해 대인관계 형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경증 장애를 지닌 연구 참여자 H는 장애가 티가 잘 나지 않아 장애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같은 과 친구들이 무슨 전형으로 학교에 왔는지, 장애대학생 우선 입사제도를 통해 들어간 기숙사인데 어떻게 기숙사에 붙었는지 등에 대해 물어볼 때 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꺼리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제한되어 대인관계가 미약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의수를 낀 팔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아파서 친구들과 함께 놀 때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싶기는 한데 너무 아파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애들도 알고는 있지만, 그 앞에서 빼 버리면 놀라는 친구들도 있어서” (B: 137-138) 오랜 시간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다. 증중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연구 참여자 I는 학년이 올라가며 친한 그룹이 형

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아무 데도 끼지 못해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1학년 초에는 대부분 친구가 어울려서 몰려다녔기 때문에 저도 같이 끼어서 놀고 했는데 2학년이 되면서 친구들이 끼리끼리 뭉쳐서 다니는데 저는 아무 데도 못 끼어서 지금은 친한 친구가 몇 명 없어요. 다른 애들이 저를 빼고 술을 마시러 갈 때 서운한 느낌이 들어요.(I: 32-35)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학생들의 비수용적인 태도와 편견’, ‘교수자의 장애 이해 부족 및 부적절한 태도’, ‘교내 구성원의 과잉 친절’ 등과 같은 ‘학교 구성원들의 부적절한 인식과 태도’로 인해 대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반학생들의 비수용적인 태도와 편견’을 경험한 예로 연구 참여자 C는 특히 조별 과제를 할 때 느끼는 부담감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과 조별과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 본인 성적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한다”(C: 12-19)며 자신이 그런 피해를 주지 않았는가 하는 성찰을 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자신이 “1인분의 몫을 더 해야 하나 하는 부담감이 있을뿐더러 그냥 동등한 학생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뭐 장애인인 있으니 괜히 뭔가 더 힘들다”(C: 13-15)라는 의견이 학생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종종 올라온다고 말하며 비장애 학생의 장애에 대한 비수용적인 태도와 편견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하였다. 연구 참여자 K는 어떤 과목에서 과제를 위해 조를 편성하는데 교수자가 장애학생이 있는 조는 팀원을 1명 더 영입해도 된다고 하자 모든 조원들이 전혀 친분도 없는 타과 학생을 조에 바로 영입했다며 “그 모습을 보며 내가 한 사람의 몫을 다 해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자격지심”(K: 89-90)이 들었다며,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보는 듯한 비장애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수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적절한 태도’를 태도적 장벽과 관련된 어려움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경증장애를 지닌 연구 참여자 J는 자신과 같이 장애가 잘 티가 안 나면 학생들 뿐 아니라 교수자도 딱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학생은 그렇다 쳐도 교수님들은 출결 상황을 보면 장애학생이란게 나와있잖아요. 그런데도 뭐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무관심이라고 해야하나”(J: 58-59)라며 장애학생에게 무관심한 교수자에 대해 아쉬워하였다. 연구 참여자 E는 원하지 않았는데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장애를 밝힌 교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였다. “제 개인정보고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듯 이야기했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E: 22-24)라며 교수자의 무분별한 태도를 아쉬워하였다.

몇몇 연구 참여자들(I, J, K)은 시험볼 때 장애학생에게 편의지원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 교수자의 장애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언급하였다.

시험 칠 때 대필을 임시로 적어서 답안지에 베껴 적어야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대필 하시는 선생님이 바로 답안지에 적으시는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으니 다른 종이에 먼저 적고 나중에 답안지에 적으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글 파일을 주시면 더 쉽고 빠르게 대필할 수 있는데 교수님 중에 한글 파일을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주는 분도 계시요. 시험지를 파일로 달라고 요구를 해도 그래요. 장애지원센터에서 시험을 치고 싶다고 말을 해도 부정행위 때문에 옆 강의실에서 치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요.(I: 21-26)

제가 1학년 때 교양수업을 들어왔는데 시험이 다 서술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뇌병변이 있다 보니까 적는 게 느려서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제가 시험 시간 연장이 필요할 것 같다. 조금 지원을 해주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걸 해주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K: 24-29)

이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교수자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부족 및 부적절한 태도가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을 준다고 이야기하였다. 한 연구 참여자(F)는 교내 구성원들의 과잉 친절은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느껴져 불편하다고 말하였다. 이 또한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태도라고 느껴진다고 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학생 도우미와의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였다.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는 장애대학생들의 교육활동 편의제공 및 학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대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해 중요한 서비스이다. 일반적으로 장애학생 도우미는 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타이핑 등 학습지원, 이동지원, 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 J는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사용 시 장애학생 도우미와의 관계가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자신은 경증장애로 수업 시간에 특별히 도우미가 필요 없는데 “같이 복수전공하는 친구가 시간표 편안하게 짜고 싶다고 도우미 하면 안되겠냐” (J: 108-109) 고 물어보아 도우미 제도를 이용했다며, 자신 말고도 이렇게 도우미 제도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도우미들이 장애 학생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 필요한 도움이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제가 조금 소심한 편이라 그러다보니까 그 도우미들이 좀 약간 마음대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몇 시에 데리러 와 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스케줄에 맞추는 거죠...(중략)..도움이 필요하다면 너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약속도 잘 안 지키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J: 96-101, 105)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봉사활동 참여를 거부하는 기관들’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봉사활동은 사회복지학과, 언어치료학과, 특수교육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해당 전공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아쉽게도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휠체어를 타는 학생의 봉사활동 참여를 거부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복지학과다 보니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많이 가고 싶고 활동을 하고 싶는데.. 개인적으로 복지관에 전화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하다가 내가 휠체어 이용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러면 휠체어는 또 어렵다고(F: 59-61)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생활에서 교내 및 교외 관련 구성원들의 장애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부적절한 태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3) 제도적 장벽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대학생활 관련 어려움 중 ‘제도적 장벽’으로 분류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의 한계점’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필요에 비해 부족한 도우미 제도 시간’, ‘전문 인력이 아닌 학생 도우미 제공’ 및 ‘수강 신청시 도우미 학생과 함께 하지 못함’ 등의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수업시간에 필기 도우미가 필요한 연구 참여자 F는 장애지원센터에서 도우미를 다 구해주기 어려워서 장애 학생들이 스스로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 중 도우미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필기 도우미가 없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도우미가 구해지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일주일에 스무 시간을 쓸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필기 도우미 기숙사 뭐 학교 이동 이런 종류가 되게 많아서 이런 시간을 쪼개서 써야 하니까 모자라요.. (중략).. 사회복지 2개 두 전공을 하는 데 과목이 6개 이러니까 그 필기 도우미 6시간을 쓰면 기숙사 도우미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죠.(F: 211-212, 219-221)

연구 참여자 I는 학생 도우미가 아닌 속기사 같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인 필기 도우미가 자신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자신도 수업을 들으면서 적어야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D는 수강 신청을 할 때 자신은 장애학생 수강 우선 제도로 인해 신청이 하루 빨라 미리 신청할 수 있는데 도우미 학생은 늦어 수강 신청에 실패하게 되는 곤란한 경우에 대해 진술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매 학기 방이 바뀌는 기숙사 시스템’으로 겪는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하며 기숙사 입·퇴사 제도가 개선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구 참여자 K의 경우 “매번 입·퇴사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 다 택배로 짐 싸서 보내고 다시 풀고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체력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택배비도 들고 해서 너무 힘들어요”(K: 179-180)라며 뇌병변 장애로 인한 체력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로 인한 출결 가이드라인 부재’에 대해 아쉬워하였다. 연구 참여자 K는 뇌병변 장애로 인해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날 수업 출석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수업을 들으러 가기 쉽지 않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경우가 있다며 장애로 인한 신체 상태 저조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출결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아쉬워하였다.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질병이 생겼다. 이런 것보다 그냥 괜히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다리 경련이 일어난다거나 오늘같이 날씨가 안 좋은 날은 통풍이 온다던가.. 그게 조금 원래부터 몸이 조금 안 좋았던 학생한테는 그게 일상적인 이야기고, 되게 뭐랄까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인데, 또 막 수업을 빠지고 그러면은 유고결석계를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진단서가 필요하고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매번 겪어왔던 일인데 병원까지 가야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계열 교수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양심에 가책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몸이 아프더라도 참고 수업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K: 220-226)

## 2.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관련 지원요구

### 1) 물리적 장벽에 대한 지원요구

연구 참여자들은 원활한 교내 이동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 및 보수 필요’와 ‘보행로 안정성 도모’와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금 A대학교 장애 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는 잘 되어있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C는 “지금도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많아서 (중략)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해 주었으면”(C: 201-203) 좋겠다고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G 역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꾸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딱 해주고 끝 이거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G: 270-273)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몇몇 연구 참여자들(A, F, J)은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서 이동할 때, “인도로 가면 울퉁불퉁한 데가 있어 불편하고 차도로 가면 위험해서 휠체어 전용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F: 179-180)라며 ‘휠체어 전용 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연구 참여자 A는 겨울에 눈이 내릴 때 길이 미끄러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며 모래를 수시로 깔아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휠체어 사용자의 교내 건물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내 시설 접근성 강화’와 ‘휠체어 사용 학생 친화적 강의실’을 요구하였다. 연구 참여자 A는 각 단과 건물별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J는 엘리베이터가 이미 설치된 건물의 경우, 구석진 곳에 설치되어 불편한 예가 있는데 장애 학생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D, F, G)은 휠체어 사용이 불편한 좁은 강의실 구조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휠체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폭넓은 강의실 구조’, ‘강의실마다 휠체어에 맞게 높낮이 조절 가능한 지체 장애 학생을 위한 책상 배치’, ‘장애학생 지정석 마련’, ‘교수자 단상에 경사로 설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교내에서 전동 휠체어 사용이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며 학교 차원에서 ‘전동 휠체어 개선 및 유지보수 지원’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연구 참여자 I는 “비나 눈이 올 때 우산을 쓰고 휠체어 운전하기가 어려워서 비막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I: 43-44)라며 휠체어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보조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연구 참여자 A는 매일 충전해야 하는 전동 휠체어를 위한 충전 장소를 확대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휠체어 정기 점검과 수리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이야기하였다.

학교에서 휠체어를 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리기사를 불러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때까지는 휠체어가 손상되면 간단하게 나사를 조이는 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해주지만 정밀한 부분은 제가 직접 수리기사를 불러서 고쳐야 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이 커요. (A: 266-268).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수업 시간에 경험하는 물리적 장벽에 대한 지원요구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업 과제를 위해 자필이나 타이핑을 해야 하는 부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교수자들이 ‘대체 과제를 제공’ 해주기를 희망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교수자가 학생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학생들이 과제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자필로 쓰라는 교수님들이 조금 계세요 근데 손 쓰는게 조금 불편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뭐 타이핑 치라고는 하시는데 타이핑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손이 약간 떨리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을 때 그래서 차라리 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조금 하면은 학생들도 더 잘 과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B: 122-125)

또한, 연구 참여자 I는 구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학생의 발표 지원을 위해 전문 속기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구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장애학생이 독립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것이다.

## 2) 태도적 장벽에 대한 지원요구

연구 참여자들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교수자의 인식 및 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 J는 교수자가 학기 처음부터 장애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먼저 물어봐 준다면 더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장애학생을 조금 처음부터 관심 있게 누군지 그냥 얼굴 파악이라도 조금 하시고 저희가 불편한 점 있는 거를 조금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편안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말을 안 하면 모르시니까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좀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먼저 장애학생이고 불편한 애들이 누군지 먼저 말해 달라고 좀 하면 편안하게 수강이 가능할 것 같고..(J: 61-63)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조별 활동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조별 활동에 대한 교수자의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몇몇 연구 참여자들(C, E, J)은 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조의 경우는 팀원 수를 늘려준다든지 하는 등의 대안을 교수자가 제시해주면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모두 보다 편안하게 조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공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교수자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장애학생을 지원해주기를 희망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구성원(예: 교직원,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자신에게 ‘과잉 친절’을 보이는 구성원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B와 G는 매번 기숙사 배정을 받고 룸메이트에게 자신의 장애를 이해시켜야 하는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학교 차원에서 장애학생 룸메이트에게 미리 같이 배정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교육을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비장애학생과 관계 형성을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다음과 같이 ‘장애학

생과 비장애학생 관계 형성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장애로 인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형성이 더 어렵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으며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이랑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걸 좀 많이 마련해서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들었는데 바깥 외출이 정말 반갑고... 그런 애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B: 159-160)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학생 도우미와 장애학생 관계 개선 지원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 F와 H는 웹사이트형 대학교 커뮤니티에 장애학생과 도우미 간의 갈등에 관한 글이 자주 올라온다며, “이 갈등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제대로 중재를 하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것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 160-161)라며 관계 개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의 본 목적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 비장애 학생 모두 서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3) 제도적 장벽에 대한 지원요구

첫째,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장애학생 편의를 도모하는 도우미 제도 운영의 개선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학생의 학습 및 생활 지원에 있어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도우미 학생과 함께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C)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도우미를 학습지원 외 ‘생활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정’ (J)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장애학생들은 주당 할당된 도우미 제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할당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C는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의 기준 마련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예: 수강신청을 쉽게 하기 위해), 장애학생 도우미와 장애학생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예: 장애학생 도우미의 임무 태만, 장애학생의 장애학생 도우미에 대한 갑질)도 자주 있기 때문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도우미 제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이 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제도적 측면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다. 연구 참여자 F는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장애학

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 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 E는 '장애학생이 봉사활동을 갈 수 있는 기관의 정보를 학교가 제공' 해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미리 정보를 제공해주면 장애로 인해 봉사가 제한되는 불편한 경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기관을 찾는 장애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연구 참여자 F는 '장애학생 기숙사 장기입사가 가능'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기숙사 입퇴사를 반복하는 것으로 인한 신체적, 금전적 어려움을 상쇄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기를 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K는 '장애로 인한 출결 가이드라인이 제공' 되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장애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출결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수업을 듣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이 경험한 대학생활 관련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보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실천적 지원방안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물리적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과 지원요구 관련 논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관련 어려움으로 물리적 장벽에 대한 진술이 비중있게 이루어졌다. 김미선(2008)의 연구에서는 “내부 공간 설비, 외부 공간 설비, 매개 공간 설비 등 편의시설의 문제는 학업 수행 및 대학 생활 전반의 어려움과 관계된다” 라며 시설 및 설비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최복천 등(2016)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일상적인 환경에서 ‘보통의 삶(ordinary life)’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다양한 지원이 강구되어야 하며, 분리가 아닌 통합을 지향하는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휠체어 사용 시 접근하기가 어려워 동아리 방 이용, 학교 인근 상가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 시설 관련 문제를 토로하였다. 이러한 물리적 제약은 원하는 장소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하는 동

아리 활동, 동아리 회식 자리에 함께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생활에의 제약도 가져오게 된다. 이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에게는 물리적 접근성 미확보가 이들의 사회적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고, 따라서 물리적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물리적 장벽에 대한 어려움은 학교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 작업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나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을 위한 관심과 개선할 의지가 있으면 단기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결과에서 수업강의실의 물리적 접근권이 확보되지 못하였을 때, 수강하고자 하는 수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우선 수강신청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우선 수강신청 기간에 장애학생이 수강신청한 과목의 경우, 장애대학생의 강의실 접근권과 이동권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강의실 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건물 중앙 문만 개방되고 다른 문들이 닫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동선이 길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는데 장애대학생에게 각 건물마다 어떤 문들이 닫혀있고 열려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업 중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도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참여자들은 도서관의 좁은 공간으로 휠체어 사용 학생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필요한 책을 찾았어도 도서관 책장이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어 책을 뽑을 수가 없으므로 사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책장의 높이를 낮추는 등 장애인이 좀 더 편하게 책을 꺼내어 볼 수 있도록(김유리, 표윤희, 이종민, 2020)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을 위해 서가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모콘으로 도서관 책장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서가로 교체하여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도서관 접근권과 이용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최지영(2009)은 장애를 고려한 시설과 제도로 장애인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음을 밝혔는데,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 정비를 통해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시급한 지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엇보다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요구였다. 물리적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많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물리적 접근성에서의 제약은 교육권, 접근권, 이동권 및 보행권 등 기본권을 누리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활동 참여에 제한을 가져오고 사회 참여를 보장받지 못한다. 김명수와 정재황(2007)은 기본적으로 인식의 장벽과 물리적 장벽을 허물어야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였고, 신애자와 김용수(2017)는 지체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경사로와 턱이 있는 계단과 편의시설 부족을 들며 물리적 장벽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언급한 다양한 물리적 장벽에 대한 지원요구 중 장애학생 지정석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학생에 따라 찬반논쟁이 있었는데, 지정석 마련이 편의지원으로 보일지 모르나 지정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장애학생의 좌석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서 교내 건물 접근성 측면에서 좁고 불편한 강의실 구조에 대하여 제시하며 휠체어를 타고 강의실에 들어갈 수 없거나 책상 간격이 좁아 원하는 자리에 앉기 어려워 앞자리나 뒷자리에 앉아야 하는 경우를 언급하였다. 또한, 계단식 교실 구조상 교수자 바로 앞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그 공간 자체가 분리의 공간이면서 곤혹스러운 자리일 수 있다. 이에 보편적 설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동통로가 넓은 강의실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선택권이 이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장애인들의 높이에 맞춰진 시설설비의 사용이 쉽지 않음을 진술하였는데, 전자출결장치와 키오스크 무인자판기의 위치를 예로 들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을 위해 태그하는 전자출결장치의 높이를 조절 가능하도록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키오스크 결제 방법 또한 카드를 넣고 빼는 방식이 아닌 쉽게 터치하는 방식의 결제 방법을 포함한 기기로 교체하여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대학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보편적 설계의 관점에서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구성원 전체가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교내에서 전동 휠체어의 사용에 대한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며 학교차원에서 전동 휠체어 개선 및 유지보수 지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비나 눈이 올 때 우산을 쓰고 휠체어 운전하기가 어려워서 비막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동 휠체어에 우산을 꽂을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 비나 눈이 올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중심으로 전동휠체어 충전장소를 여러 곳으로 확대하는 등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을 위한 실제적인 편의시설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관심을 가지면 단기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한 지원이므로 무엇보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편의를 촉진하기 위한 학교차원에서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7차까지 진행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는 장애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물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을 보장하고 있는데, 장애대학생이 교내 각 시설로 이동·

접근하는 데 안전하고 적합한지, 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통신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유도 및 안내표시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교사시설 내 장애대학생의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설비(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교육부, 2020b). 지속적으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가 이루어지고, 각 대학이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여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을 위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2. 태도적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과 지원요구 관련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장애 이해 부족 및 부적절한 태도, 교내 구성원의 과잉친절 등을 태도적 장벽으로 거론하였다. 김미선과 박중휘(2010)의 연구에서는 장애특성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차이와 그에 따른 제반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과제와 관련하여 제출 시기나 과제의 수행 방법의 어려움, 원본 파일 제공 및 시험 시간의 안배 문제를 호소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지체장애로 인해 수업시간에 필기를 하거나 자필 과제를 해야 할 때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원본 파일 제공 및 시험 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에 교수자의 장애이해 부족으로 곤란한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에게 교수·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교수자는 이들의 교육의 질에 대한 요구와 교수자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교수자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특성에 대하여 알고 학습 및 평가의 과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제대로 된 교수·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교수자의 자질 향상에 대한 연수 및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이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태도적 장벽과 관련하여 과잉친절과 배려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Wang과 Dovidio(2011)는 주변인들의 지나친 관심과 배려는 장애인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김미선과 박중휘(2010)의 연구에서는 타인들의 배려가 역차별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보이는 배려는 장애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발로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경험하는 장애인은 과잉친절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고, 과잉친절은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느껴져 불편하다고 호소하였으며, 비장애인에게 무력한 존재로 비취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무관심도 아니고, 과잉친절도 아니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적절하다고 느끼는 배려가 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장애이해교육을 통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태도적 장벽에 대한 지원요구로 장애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

움을 포함하여 비장애학생들의 비수용적인 태도와 편견을 언급하였다. 자신의 장애를 이해시켜야 하는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학교 차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교육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관계 형성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조현근(2016)의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이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고, 김미선(2012)의 연구에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장애대학생은 두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관계라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당사자와 상대방이 함께 노력해야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장애대학생에게는 심리·정서적 영역에서의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교직원, 비장애학생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다 실질적인 통합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조현근, 2016). 김동일 외(2013)의 연구에서 장애대학생은 공동체 활동(예: 동아리)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대학 내 학습동아리, 관계 형성 프로그램 참여로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자연스러운 우정 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대학생은 개인 차원에서 대인관계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인 비장애학생 또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들이 함께 하는 만남의 시간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3. 제도적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과 지원요구 관련 논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은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타이핑이 어렵다는 물리적 장벽이 존재하나 이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에게 속기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청각장애학생들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제한이 있으므로 생활 및 학업 적응을 위해 속기사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김경화, 2015), 소근육 움직임의 제한으로 글씨를 쓰기가 어려운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도 학업 지속 및 시험 준비를 위해 속기사의 필기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속기사와 같은 전문 인력은 장애대학생의 교내 교육활동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사업비의 80%는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20%는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장애대학생이 학교에 요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대학생이 수강하는 모든 수업에 대해 속기사를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일반 학생 도우미가 대필을 하는 것으로 일부 대체하고 있으나 전문 속기사와 달리 일반 학생 도우미의 대필은 전체 내용을 필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 그리고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100% 교비에서 속기사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원활한 학업을 지

원하기 위해 전문 속기사 협회와의 MOU체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 등 학교 차원에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대학생 도우미는 장애대학생의 학습 및 이동지원,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나 ‘도우미와 장애대학생 관계 개선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장애대학생 도우미 제도 기준 마련’ 등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존재한다. 2020년부터 교육부에서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우미’라는 용어 대신 ‘교육지원 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교육부, 2020b).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편의상 도우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장애대학생 도우미로 제시하였다. 장애대학생에게는 도우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김미선의 연구(2011)에서 제안하였듯이 도우미의 역할에 대한 지침 자료를 마련하고, 도우미 대상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 및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이미숙, 2011). 그리고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도우미의 역할 정립과 함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장애대학생 도우미 제도 운영 관련 만족도 조사를 통해 도우미 제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교육부터 평가까지 도우미 제도 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경임과 송미승(2011)은 장애대학생이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하여 기울이는 노력은 대체로 개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주를 이룬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대학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어 이들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생활 관련 어려움과 지원요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특정대학인 A대학에서만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Back, Y. S. (2005). Needs of support for learning and actual condition and satisfaction degree on support for learning for colleg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6(4), 151-169.
- [백유순 (2005). 장애 대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서비스요구 및 지원 실태와 만족도 조사: 청각장애 대학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151-169.]
- Best, S. J., Heller, K. W., & Bigge, J. L. (2010). *Teaching individuals with physical or multiple*

- disabilitie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Prentice-Hall.
- Chae, H. T. (2016). An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the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adaptation levels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y on their career decision efficac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9*(2), 19-37.  
[채희태 (2016). 장애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전공적응 정도가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9**(2), 19-37.]
- Cho, H. J., & Park, J. K. (2013). Adjustment to college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7*(4), 227-249.  
[조현진, 박재국 (2013). 장애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특수교육학연구, 47**(4), 227-249.]
- Cho, H. K. (2016). A narrative inquiry into college life of student with severe visual impairment. *Korean Society of Wellness, 11*(3), 209-226.  
[조현근 (2016). 중도 시각장애학생의 대학생활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1**(3), 209-226.]
- Choi, B. C., Byun, Y. C., Kim, M. O., Park, H. C., Sim, S. S., & Oh, D. E. (2016). Policy plan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welfare support system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최복천, 변용찬, 황주희, 김미옥, 박희찬, 심석순, 오다은 (2016).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Choi, J. Y. (200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by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4), 2571-2589.  
[최지영 (2009). 장애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0**(4), 2571-2589.]
- Choi, M. S., Kim, S. A., & Park, E. H. (2002). Professors' awareness of colleg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1), 133-157.  
[최민숙, 김성애, 박은혜 (2002). 장애학생의 대학교육에 대한 교수의 인식. **특수교육, 1**(1), 133-157.]
- Choi, Y-J., & Lim, K-W. (2019). The university life experiences and meaning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5*(4), 25-56.  
[최연진, 임경원 (2019). 발달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과 의미. **한국평생교육학회, 25**(4), 25-56.]
- Han, K. I., & Song, M. S. (2011). The analysis on the life experience of male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by grounded theory.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54*(2), 1-23.  
[한경임, 송미승 (2011). 장애 남자 대학생 생활 경험의 근거이론적 분석. **중복·지체부자유아연구, 54**(2), 1-23.]
- Kang, S. G. (2015).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postsecondary education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Higher Education and Post-Secondary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1*(2), 21-40.

***A Qualitative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Difficulties Related to College Life Experience and Support Needs of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or Brain Lesions*** 121

- [강성구 (2015). 장애대학생관련 국내 연구경향에 대한 문헌분석.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 1(2), 21-40.]
- Kim, D. I., Jeong, S. R., Koh, H. J., Kim, J. S., & Kim, S. Y. (2013). Adjustment to colleg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 grounded theory approach.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1), 65-95.
- [김동일, 정소라, 고혜정, 김주선, 김수연 (2013). 장애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 과정에 관한 질적 분석: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1), 65-95.]
- Kim, D. I., & Son, J. Y. (2008). e-Learning Design Strategies for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2(4), 293-312.
- [김동일, 손지영 (2008). 장애 대학생의 효과적인 학습 지원을 위한 e-러닝 설계 전략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2(4), 293-312.]
- Kim, D. I., Son, J. Y., Kim, H. J. Kang, Y. A., & Jeong, S. R. (2009). An Ecological approach to support system for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4(4), 231-258.
- [김동일, 손지영, 김희진, 강영아, 정소라 (2009). 장애대학생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의 협력적 지원 체제 구축 방안.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8(4), 231-258.]
- Kim, E. H. (2018). College life experience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four-year college: Focus on support needs of college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20(4), 241-261.
- [김은하 (2018). 국내 4년제 대학교 발달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 통합 환경의 발달장애 대학생 지원요구 판별 중심. **지적장애연구**, 20(4), 241-261.]
- Kim, H. I. (2012). The study of needs and satisfaction degree on support for learning for college students with blind, hearing and physic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4(3), 165-190.
- [김형일 (2012). 장애대학생 대학생생활 만족도 및 요구 조사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165-190.]
- Kim, K. H. (2015). College adjustment of freshmen with hearing impairment and deaf admitted through special admission in 4 year college.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1(3), 187-202.
- [김경화 (2015). 4년제 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청각장애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3), 187-202.]
- Kim, M. S. (2008). A qualitative inquiry on the perception and support needs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the support-service systems of universit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5(2), 121-136.
- [김미선 (2008). 장애대학생의 대학 내 지원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및 요구. **특수교육연구**, 15(2), 121-136.]
- Kim, M. S. (2012). The perception and support needs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on university life: over the right to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8(4), 97-117.

- [김미선 (2012). 시각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인식과 요구: 교육권 그 너머. **시각장애연구**, 28(4), 97-117.]
- Kim, M. S., & Park, J. H. (2010). A qualitative inquiry on the perception and support needs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for the learning-support systems of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6(1), 25-41.
- [김미선, 박중휘 (2010). 대학에서의 학업지원에 대한 시각장애 대학생의 인식과 요구. **시각장애연구**, 26(1), 25-41.]
- Kim, R. K., Lee, M. S., Kim, Y. A., Lee, M. J., & Kang, J. G. (2014). Analysis of the employment situation and existing support programs for college graduate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5(3), 263-281.
- [김라경, 이미선, 김영애, 이명주, 강종구 (2014). 장애대학생들의 취업 현황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3), 263-281.]
- Kim, Y. R., Pyo, Y. H., & Lee, J. M. (2020). Perceptions and supports needs of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families on library servic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1), 447-472.
- [김유리, 표윤희, 이종민 (2020).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지원 요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447-472.]
- Kwak, J. R. (2009). An ethnographic case study on personal assistant supports for students with severe physic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4(1), 85-108
- [곽정란 (2009). 중증지체 장애대학생의 활동보조지원에 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4(1), 85-108.]
- Kwon, S. W. (2017). A case study of actual condition of learning support and satisfaction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18(1), 71-92.
- [권순우 (2017). 청각장애 대학생의 학습 지원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사례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8(1), 71-92.]
- Kwon, S. W., & Kim, B. H. (2003). A study of current status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students adaption of university students with hearing disability in campu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 12(1), 125-144.
- [권순우, 김병하 (2003). 농학생들의 대학생생활적응(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언어치료연구**, 12(1), 125-144.]
-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CA: John Wiley & Sons.
- Ministry of Education (2020a).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교육부 (2020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 Ministry of Education (2020b). *Handbook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welfare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ejong.  
[교육부 (2020b).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편람**. 세종.]
- Oh, Y. J., & Lee, S. M. (2013). A study of factors prediction adjustment to college amo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Difficulties Related to College Life Experience and Support Needs of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or Brain Lesions*** 123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7(2), 229-252.

[오윤진, 이순민 (2013). 시각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7(2), 229-252.]

Seo, I. H., & Kong, G. S. (2004). *Theory and practice of desire survey*. Nanam Press.

[서인혜, 공계순 (2004). **욕구조사의 이론과 실제**. 나남출판.]

Shin, A. J., & Kim, Y. S. (2017). Research on the Disability Acceptanc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with Acquired Physical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1(4), 115-141.

[신애자, 김용수 (2017). 중도 지체 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 경험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1(4), 115-141.]

Wang, K., & Dovidio, J. F. (2011). Disability and autonomy: Priming alternative identities. *Rehabilitation psychology*, 56(2), 123-127.

<국문 초록>

##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관련 어려움과 지원요구에 관한 질적연구

옥민옥 · 표윤희 · 홍정숙

**[목적]** 본 연구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관련 어려움과 지원요구 관련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지원을 위한 방안과 시사점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인 11명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면담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 후 전사된 자료는 지속적 비교 분석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2개의 범주, 6개의 주제, 37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목적에 따라 어려움과 지원요구가 범주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른 주제는 물리적 장벽, 태도적 장벽, 제도적 장벽, 물리적 장벽에 대한 지원요구, 태도적 장벽에 대한 지원요구, 제도적 장벽에 대한 지원요구로 분류되었다. **[결과]** 연구 결과,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물리적 장벽(예: 교내 이동의 어려움, 교내 건물 접근성과 설비 이용), 태도적 장벽(예: 교수자 및 비장애학생들의 장애 이해 부족 및 부적절한 태도) 및 제도적 장벽(예: 필요에 비해 부족한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체 및 뇌병변 장애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지원방안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장애대학생, 대학생활, 지원요구

논문 접수(Received): 2020. 11. 10. / 심사 시작(Examined): 2020. 11. 10. / 게재 확정(Accepted): 2020. 12. 11.